

이런 독서운동은?

뛰면서 읽기 대회,
책읽기TV경연대회...
'읽는 것과 친해지는 운동'

이용훈_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, 도서관문화비평가

부르기가 아닌 책읽는 것 자랑하기를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또 어떨까? 여러 책읽기 운동들을 서로 잘 연결해 보면 생각하지 않은 신선한 운동이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.

두 번째 방법은 이왕 다른 곳에서 한 것이라도 제대로 해 보는 것이다. 사실상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독서운동은 누군가 먼저 생각하고 시도해 본 것이고, 나름대로 성공적인 경우라서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. 특히 외국에서 시작된 운동들은 더욱 그렇다.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운동을 따라할 때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 만들고 있는가를 되물어 보게 된다.

이왕 하는 것인데 정말 그 운동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대로 파고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운동이 아니라 운동의 껍데기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. 그러다보니 다른 곳에서는 잘 되는 운동도 우리 땅에서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는 일도 생기는 것이다.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니, 있는 것들이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다. 오히려 그런 자세가 새롭다고 할 것이다.

세 번째로는 문자로 된 책에 좀더 많이 접근하도록,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책 그 자체를 '읽어보고 싶게'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책읽기가 새로우려면 책 그 자체도 새로워야 하지 않을까. 물론 아무리 새롭고 놀라운 변화라도 읽을 텍스트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. 햇살 아래에서만 글자가 나타나는 책은 어떨까? 반쪽만 있고 나머지는 자기가 생각해서 채워가며 텍스트를 완성하도록 한 책은 없을까? 비오는 날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은 만들기 어려울까?

결국 뾰족하게 새로운 책읽기 운동을 찾지 못했다. 과연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할 만한 것은 다 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다. 그래도 어딘가에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, 블루오션이 있을지도 모를 일. 만일 책읽기 운동의 블루오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다. ■

책을 읽는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일이다. 워낙 재미있는 일들도 많고 편하게 보고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산더미인데,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글자로 만들어진 책이란 것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. 그러면서도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읽기를 권하고 심지어는 강요하기도 한다. 옆 나라에서는 법까지 만들고 있고, 우리도 법에서 독서진흥을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.

그러나 정작 책읽기는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. 책 읽자는 운동은 적지 않은데, 다들 신나는 것 같지는 않다. 그래서 이번에 <출판저널>에서 '이런 독서운동은 어떨까?'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닐까? 새로운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. 실제 사람들의 흥미를 더 끌고 재미와 유익함도 줄 수 있는 책읽기 운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

사실 그동안 많은 책읽기 운동이 있어 왔기에 새롭고 참신한 것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. 책읽기에 관한 책을 봐도 별 새로운 것은 없다. 그렇다면 어떻게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?

첫 번째 방법은 있는 여러 가지를 섞어 보는 것이다. 예를 들면, 책 읽으면서 달리기(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), 한 자리에 앉아 장편소설 끝까지 다 읽기 대회, 몇 사람이 몇 날을 이어 소리내서 책 한 권 다 읽기 같은 것은 어떨까? 가족 모두가 나와 노래